

碩士學位論文

濟州道 高等學生의 政治意識

指導教授 金 恒 元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許 君 珍

1994年 8月

濟州道 高等學生의 政治意識

指導教授 金 恒 元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4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提出者 許 君 珍



許君珍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4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審査委員
審査委員

梁 成 文
金 恒 元
박 용 경



< 抄 錄 >

濟州道 高等學生의 政治意識

許 君 珍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恒 元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政治意識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 함으로써 민주적인 정치문화의 정착과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정치교육내용과 정치교육방법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 및 질문지법을 이용하였고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 고등학교학생 860명이다. 조사내용은 민족, 국가영역 6개 문항, 정치, 사회영역에 12개 문항, 통일, 안보영역에 6개 문항 등 총 24개 문항이다. 반응결과는 영역별로 전체반응비율을 제시한 다음 이를 차원별로 분석 및 해석을 하였다.

조사 분석한 濟州道 高等學生들이 政治意識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민족차원에서는 민족의 핵심인 민족의식에서 비교적 긍정적 반응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생들이 共屬的 感情 내지 연대의식이 높다.
2. 국가차원에서는 국가와의 공동체의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국민적 자부심도 있으나 조국애의 약화현상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3. 정치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 인식성향이 높게 나타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4. 사회차원에서는 빈부의 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자기보다 상류계층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성향을 보이고 있고 황금만능사상을 높이 신뢰하고 있다.
5. 통일차원에서는 북한동포에 대한 동포애가 매우 높고 자유민주적인 평화 통일을 원하고 있으나, 어떻게 통일을 이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6. 안보차원에서는 국토방위의 의지는 높고 우리의 안보태세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하고 있으면서도 핵무기 보유를 통한 안보나 평화유지는 원하지 않고 있다.



目 次

I. 序 論	1
1. 研究의 目的	1
2. 研究의 制限點	3
II. 理論的 背景	4
1. 概念定義	4
2. 先行研究의 動向	7
3. 概念模型의 設定	9
III. 研究의 方法	11
1. 調査道具	11
2. 調査對象	11
3. 資料處理	13
IV. 結果 및 論議	15
1. 民族·國家領域	15
2. 政治·社會領域	24
3. 統一·安保領域	39
V. 要約 및 結論	47
參考文獻	52
英文抄錄	55
附 錄	57

表 目 次

<표 1> 조사도구의 구성내용 및 문항수.....	12
<표 2> 지역별 질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13
<표 3> 배경변인별 표집 인원.....	14
<표 4> 애국심.....	16
<표 5> 민족적 자부심.....	17
<표 6> 충효사상에 대한 태도.....	19
<표 7> 국가 동일시.....	20
<표 8> 국민적 자부심.....	21
<표 9> 조국애.....	23
<표 10> 국회권한 강화여부.....	25
<표 11> 지도자의 국민요구 충족도.....	26
<표 12> 투표에 대한 인식.....	27
<표 13> 정치적 관심도.....	29
<표 14> 정당의 국민의사 반영도.....	30
<표 15>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	31
<표 16> 정치능력감.....	32
<표 17> 정부시책에 대한 지지도.....	33
<표 18> 빈부의 심화정도.....	34
<표 19> 계층의식.....	35
<표 20> 우리 사회의 배금사상.....	37
<표 21> 사회적 기회균등.....	38

<표 22> 평화통일정책의 숙지도.....	39
<표 23> 북한동포에 대한 감정.....	41
<표 24> 통일방식에 대한 인식.....	42
<표 25> 평화유지와 핵무기 보유.....	44
<표 26> 안보태세에 대한 인식.....	45
<표 27> 국토방위의 의지.....	46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政治란, 어떤 면에서 보면 人間行動의 組織技術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art)의 수단이 다름 아닌 權力이다. 그러므로 政治란 權力의 操作에 의한, 그리고 적극적 내지 소극적인 同意를 媒介로 하는 개인행동의 組織化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政治가 개인행동의 조직화인 한에 있어서, 政治는 모두 個人意識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다.

그런데 민주화에 의한 사회형태의 변화와 그리고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政治化의 進行으로 말미암아 政治와 個人은 직접적으로 서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전근대적 전통사회의 구속적인 여러 가지 규제로부터의 개인의식의 해방은, 한편으로는 개인으로 하여금 政治에 있어서의 자주성을 갖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政治權力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개인을 조종할 수도 있게 만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현대정치론 고찰하는 데 있어서 政治意識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¹⁾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낮을 때는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가 큰 저항을 받지 않고도 사회를 능률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다원화되고 각계각층으로부터 정부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는 산업사회에서는 지방자치와 같은 분권화, 사회 諸集團들에 대한 자율성 증대, 여론 중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정치구조의 개방과 다원화와 같은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나라의 정치발전이 올바르게 이룩되려면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정향이 민주적인 정치문화로 성숙화될 수 있도록 어릴때부터 전수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사회화의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개인은 하나의 정치적 자아

1)李克燦(1987), 「政治學」, 法文社, p.246.

를 획득하게 되는데, 정치적 자아란 개인의 정치에 대한 태도나 감정, 신념 또는 인식의 총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

우리 나라는 민주제도를 채택한 이래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해 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의식도 많이 변하였다. 시행착오를 가져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된 정치제도와 토착적인 정치문화간의 격차에서 온다고 볼 수 있으며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두 요소간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실상 정치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정치문화를 민주적인 것으로 바꾸는 데는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의식 내지 政治的 性向이 그 나라 政治體系의 類型化와 운영과정, 그리고 정치적 안정과 변동 및 발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표명되어 왔다. 우리 나라에서도 1960年代 말부터 국민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미 보고된 연구논문만도 수십여 편에 달하고 있다.

人格 完成의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高等學校 시기는 어느 때 보다도 感受性이 높아서 여러 가지 政治現象들을 빨리 그리고 쉽게 받아들여지게 되며, 일단 이 시기에 받아들인 것은 成人이 되어서까지도 상당한 기간 지속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정치적 정향을 결정짓는 데 중핵이 되는 정치의식을 조사연구하는 일은 우리사회의 미래 정치구조를 예견할 수 있으며, 개인, 집단 또는 체제 수준에서의 政治行爲를 설명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의 정치상황 속에서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논문이 다수 나오고 있지만, 제주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정치적 환경과 대상에 대한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일반적 認識性向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민주적인 정치문화의 정착과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정치교육내용과

2) 尹龍熙, 成章煥(1982), "政治社會化와 環境," 「東洋文化研究」, 第九輯, 慶北大學校 東洋文化研究所, p. 86.

정치교육방법 개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I장에서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과 연구의 제한점을 설정하였고, II장에서는 정치의식의 개념정의, 선행연구의 동향 및 개념모형을 설정하였으며, III장에서는 조사도구, 조사대상, 자료처리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IV장에서는 정치의식의 조사결과를 분석하였으며, V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설정하였다.

2. 研究의 制限點

본 연구는 제주도 고등학생의 政治意識을 조사하여 민주적인 정치문화의 정착과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정치의식에 관한 측정변인으로 국가·민족·정치·사회·통일·안보영역으로 局限하였다.

둘째, 본 연구를 위한 표집방법은 제한표본추출에 의한 군집표집방법을 활용하였으나, 제주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10개 고등학교 학생 일부가 제주도 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표집으로서의 지역적 偏頗性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배경변인도 성별, 학년별, 계열별, 부모의 학력별, 부모의 직업별, 가정의 생활정도별로 국한시켰다.

넷째, 조사방법으로 면접방법, 관찰방법, 개별적 설문방법 등은 본 연구에서 활용될 수 없었고, 집단적, 간접적 질문지방법을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II. 理論的 背景

1. 概念定義

政治意識이라는 개념은 매우 多樣하게 定義되며, 이와 유사한 개념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 어느 관점에서나 만족할 수 있는 간결한 정의를 내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의식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政治文化, 政治的 定向, 政治的 態度 등과 같은 유사한 개념들을 널리 混用하고 있다.³⁾

우리나라에서 정의되고 있는 정치의식에 대한 개념정의를 보면, 丁得圭는 정치의식이란 政治 一般 또는 특정한 정치문제에 대하여 가지는 정치행동의 先有定向으로서 政治的 思考와 그것에 緣由하는 행동양식인 태도를 의미한다.⁴⁾

李克燦은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 행동을 결정하는 바탕으로 의견, 판단, 인상, 감각 등이 작용한다고 전제한 후 정치행동을 결정하는 精神作用을 정치의식이라고 보았다. 즉 어떤 政治的 事象과 특정한 정치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認識·評價·態度를 총칭하여 정치의식이라 정의하였다.⁵⁾

정윤무는 정치의식이란 이성과 감정이 착잡하게 얽혀 형성되는 정치적 신념을 基底로 하는 정치적 태도를 中核으로 한 心理的 事象의 총칭이다. 바꾸어 말하면, 정치일반 내지 개별적 정치문제에 대한 사고방식 및 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⁶⁾

丁得圭는 정치의식이란 정치에 대한 느낌, 사고방식 또는 정치활동의 배

3) 朴容憲(1980), “現代韓國人の 政治意識에 관한 調査研究,” 「韓國思想과 倫理」, 韓國精神文化研究院, p. 309.

4) 丁得圭(1975), 「政治意識과 投票行態」, 博英社, p. 69.

5) 李克燦(1987), 前掲書, pp. 228~229.

6) 正윤무(1982), 「現代政治心理論」, 博英社, p. 12.

경이 되는 사물이나 상징물에 대한 관점 즉 자신이 속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견해나 감정, 政權(regime)에 대한 느낌과 생각 그리고 特定政策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말한다.⁷⁾

이러한 정치의식과 유사한 개념으로 외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政治文化이다. 정치문화를 정치현상의 분석개념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지극히 최근의 일로써, 주로 行態主義 政治學의 발달에 그 기원을 두며, 행태학적 접근법에 있어서 개인의 정치행태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微視分析과 정치사회학에 공통된 변수들에 기반을 둔 巨視分析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발전한 것이다. 정치문화 연구에서는 인간이라는 주관적 변수를 강조하여 정치체계에 대한 태도·신념·가치 등의 政治定向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치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⁸⁾

알몬드(Gabriel A. Almond)와 포우웰(G. Bingham Powell)에 의하면 정치문화란 정치적 대상(이념, 기구, 단체, 역할)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定向 類型이라 정의된다.⁹⁾ 파이(Lucian W. Pye)는 정치문화란 정치과정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고 또한 정치체계 내의 행태를 규제하는 기본적인 전제와 규칙을 부여하는 태도·신념 및 감정의 집합¹⁰⁾ 이라고 하였다.

다알(R. Dahl)은 정치적 대립의 다른 패턴을 설명해 주는 요인으로 정치문화를 설명하는데, (1)문제해결의 정향: 그것들이 실용적인가 아니면 합리적인가? (2)집단행동에 대한 정향: 그것들이 협력적인가 아니면 비협력적인가? (3)정치체계에 대한 정향: 그것들이 충성적인가 아니면 소외되어 있는가? (4)다른 국민에 대한 정향: 그것들이 신뢰적인가 그렇지 못한가? 등으로 정치문화를 설명하였다.¹¹⁾

7) 丁得圭(1971), "韓國人の 政治意識의 構造的 分析," 「전남대학교 논문집」, 제 17권, 전남대학교, p.3.

8) 韓培浩, 魚秀永(1987), 「韓國政治文化」, 法文社, pp.14~15.

9) Gabriel A. Almond and G. Bingham Powell(1968), *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 Approach*, Boston: Little, Brown and Co., p.50.

10) Lucian W. Pye(1974), "Political Culture,"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Vol.12, New York: Macmillan and the Free Press, p.218.

11) R. Dahl(1966), *Political opposition in Western Democracies*, New Haven

비어(Samuel H. Beer)는 사람은 공통된 인간성으로서 어떠한 감정적 충동, 지적 능력, 그리고 도덕적 정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다소 변경시켜 가면서 교육과 모방을 통해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있다. 이것을 感情的 態度·價値·信念이라고 하며 사회의 문화는 이것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정치문화는 사회의 일반문화의 下位文化로서, 정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감정적 태도·가치·신념 등이 정치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정의한다.¹²⁾

이상과 같이 정치문화에 대해서 학자에 따라 각기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1963년에 알몬드와 버바(Sidney Verba)가 「市民文化: The Civic Culture」에서 정의한 정치문화의 개념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정치문화란, 일정 시기에 있어서 특정한 정치체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치에 대한 그 구성원의 일련의 태도·신념·감정 등 政治的 定向의 총화라고 정의했다.¹³⁾

정치태도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르며 일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마시알라스(Byron G. Massialas)는 정치태도를 정치문화의 한 樣態로 보고 있다. 즉 정치문화는 정치적 구조와 對比되는 것으로서 정치질서에 대한 인지적 정향 뿐만 아니라 개인의 태도와 느낌을 포함한다고 하였다.¹⁴⁾ 캠퐸(D. T. Campbell)은 정치태도를 “정치대상에 대한 개인의 고유한 잠재적 정향.”¹⁵⁾ 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치의식의 분석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정치정향이다. 定向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지닌 일정한 행동성향을 의미하며 따라서 정치정향이란 정치

pp. 352~355.

12) Samuel H. Beer(1958), "The Analysis of Political System," in *Patterns of Government*, ed., by Samuel H. Beer and Adam B. Ulam, New York: Random, p.32.

13) Gabriel A. Almond and Sideney Verba(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Political Development*.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14-15.

14) Byron G. Massialas(1969), "Citizenship and Political Socialiation,"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p.9.

15) D. T. Campbell(1950), "The Indirect Assessment of Social Attitude," *Psychological Bulletin*, No.47, pp.15-38.

적 자극이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일정한 행동으로 표현되는 성향을 의미한다. 인지적 정향(Cognitive Orientation)은 정치체제, 체제의 역할 및 역할 담당자, 정치체제에의 投入과 産出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말하며, 감정적 정향(Affective Orientation)은 정치체제, 그 체제의 역할, 성원 그리고 성과에 대한 느낌을 말한다. 평가적 정향(Evaluative Orientation)은 가치기준과 가치기준을 정보 및 감정과 결합시킴으로써 이루어진 정치적 대상에 대한 판단과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¹⁶⁾ 페이지(Jeffery M. paige)는 정치적 효능과 정치적 신뢰의 개념을 가지고 정치정향을 (1)忠誠의 정치정향 (2)異議의 정치정향 (3)從屬의 정치정향 (4)疏外の 정치정향으로 구분하고 있다.¹⁷⁾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정치의식이라는 개념은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사한 개념들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政治意識을 “政治對象에 대해서 高等學生들이 갖는 認知的·情意的·行動的인 反應性向”이라고 규정 하기로 한다.

2. 先行研究의 動向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하여진 정치의식과 관련이 있는 연구들을 보면, 전국적인 규모의 연구는 별로 많지 않고, 주로 일부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연구범위도 정치의식을 포괄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정치관, 정치적 태도, 국가관, 안보의식, 북한관들을 다루거나 정치의식을 비교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 대표적인 연구들을 보면, 安乘珉은 “한국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에 관한 小考”에서 부산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정치관에 대한 내용을 설문문을 통하여 조사하고 있다.¹⁸⁾ 黃明姬는 “한국대학생의 정치의식에 관한

16)G. Almond and S. Verba(1963), *op.cit*, pp.15-16.

17)Jeffery M. Paige(1971), “Political Orientation and Rio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pp.811-813.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反美意識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으며,¹⁹⁾ 朴準用은 "남북대화가 남북통일에 미칠 영향과 국민의 반응연구"에서 부산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북대화에 대한 국민의 반응과 통일에 관계되는 국제정치적 문제를 국민의 정치의식구조를 통해 추적해 보려하고 있다.²⁰⁾ 高永復은 "한국대학생의 意識과 思想"에서 전국의 24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사회관·민족주의관·정치관 및 이데올로기관을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고 있다.²¹⁾ 田溶新은 "한국대학생의 정치적 태도"에서 5개교(서울 3, 경북 1, 전남 1)대학생들을 중심으로 急進-保守面과 穩健-強硬面으로 나누어서 정치적 태도를 조사하고 있다.²²⁾ 李命吉은 "地方大學生들의 승공생활의 분석"에서 경상남도의 3개 대학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 지방대학생들이 교육받은 勝共問題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생활하며, 어떻게 알고 비판하고 있으며, 대학생이 지니는 對共產主義, 對北韓觀 및 이에 따른 생활실천도를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²³⁾ 그리고 金恒元 外 2인은 "濟州道大學生의 政治意識에 관한 調查研究"에서 제주도 내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이데올로기, 경제·사회, 통일·안보·북한 영역으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있다.²⁴⁾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朴容憲의 "現代韓國人의 政治意識에 관한 調查研究"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대상에 있어서의 방대함이다. 전국 18,000여명의 국민들에게 개인 또는 집단

18) 安秉珉(1982), "한국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에 관한 小考,"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논총 제1권 2호, 부산대학교, pp. 45-72.

19) 黃明姬(1989), "한국대학생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 朴準用(1975), "남북대화가 남북통일에 미칠 영향과 국민의 반응연구," 부산대학교 법정대학, 법학연구 제17권, 부산대학교, pp. 89-121.

21) 高永復(1982), "韓國大學生의 意識과 思想," 「現代社會」, 봄호, 現代社會研究所, pp. 18-39.

22) 田溶新(1969), "韓國大學生의 政治的態度," 「고려대학교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제15집, 고려대학교, pp. 33-51.

23) 李命吉(1972), "地方大學生의 勝共生活 態도의 分析," 「문교부 연구 보고서」, 사회과학계 제2집, 경상대학교,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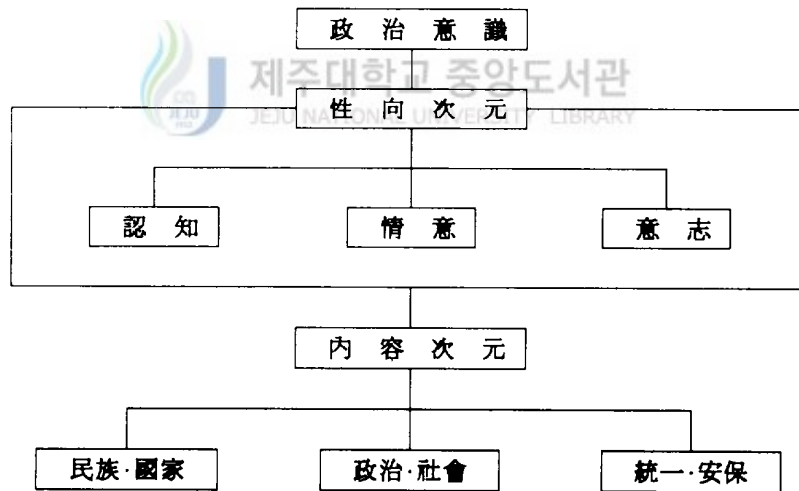
24) 金恒元, 高性俊, 金泰保(1986), "濟州道大學生의 政治意識에 관한 調查研究,"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24집(사회편), 제주대학교, pp. 339-413.

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認識對象에 있어서도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정치의식을 크게 民族·國家, 政治·社會, 統一·安保領域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들 영역의 관련요소들을 다시 體制·過程·政策의 차원에서 분류하여 총 27개의 하위개념을 설정하였다. 이들 하위개념의 내용요소들은 認知·感情·意志 등 세 수준의 심리적 성향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서 측정도구 총 148개 문항을 만들어 조사하고 있다.²⁵⁾

3. 概念模型의 設定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정치의식의 인식대상을 내용차원에서는 민족·국가, 정치·사회, 통일·안보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心理的 性向次元에서는 “態度構成理論”²⁶⁾을 토대로 인지·정의·의지로 분류하여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1> 정치의식의 개념모형



25) 朴容憲(1980), 前掲書, pp. 307-326.

26) 朴容憲(1976), 「社會的 行動과 學習」, 教育出版社, pp. 298-312.

정치적 대상의 내용영역을 민족·국가, 정치·사회, 통일·안보 등 세 영역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민족·국가와 정치·사회영역에 포함되는 하위구성요소들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도 흔히 취급되는 요소들이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국내외적 상황으로 인하여 통일과 안보문제가 정치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물론 국민들의 정치의식에 미치는 영향 역시 지대하기 때문에 통일·안보영역을 별도로 설정하게 된 것이다.

정치적 대상의 내용요소도 분류하기 어려우나 이들 대상에 대해서 갖는 심리적 반응성향을 규정하고 분류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 된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지적한 정치의식의 심리적 성향차원을 태도구성이론을 토대로 인지·정의·의지의 세 수준으로 개념화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세 수준의 성향차원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해 보면, 認知水準이란 의식의 대상에 관련된 사물이나 事態를 지각하고 이해하며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지적 과정을 뜻하는 것이며, 感情水準이란 의식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이 수반되는 표현과 관심의 強調과 좋고 나쁨에 따른 평가적 반응성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意志水準이란 기대, 희망, 결의, 요구 등과 같은 행동적 반응성향을 의미한다. 27)



27) 朴容憲(1980), 前掲書, pp. 313-315.

Ⅲ. 研究의 方法

1. 調査道具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정치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變因으로 민족·국가, 정치·사회, 통일·안보의 3개 영역으로 나누고, 이러한 내용을 심리적 성향에 따라 24개의 문항을 Likert식으로 제작하였다. 제작에는 특히 朴容憲의 “現代 韓國人의 政治意識에 관한 調査研究”에 사용되었던 문항들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政治意識診斷을 위한 24문항, 배경조사 6문항 등 총 30문항이다.

이 문항 중 본 연구의 중핵을 이루는 정치의식진단을 위한 24문항을 대상 내용영역별과 인식성향차원별로 제시하면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러한 정치의식진단을 위한 문항들은 각 문항마다 5단계의 반응답지가 주어지는 Likert식이다. 다시 말해서 ‘확실히 그렇다’에 5점, ‘그런 것 같다’에 4점, ‘잘 모르겠다’에 3점, ‘아닌 것 같다’에 2점, ‘확실히 아니다’에는 1점으로 배점하여 반응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많을수록 肯·否定的 傾向이 높음을 뜻하며, 中·부정의 기본은 대체로 3점을 중심으로 左右傾向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석하였다.

2. 調査對象

본 연구가 사용한 標集方法은 制限標本抽出(Restricted Sampling)에 의한 群集標集方法(Cluster Sampling Technique)을 사용하였는데, 제주도의 고등학교 학생수와 지역을 고려하여, 제주시 지역 4개교, 서귀포시 지역 2개교, 북제주군 지역 2개교, 남제주군 지역 2개교 등 총 10개 고등학교 학생 920명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질문지 조사는 1993년 11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각 학교 사회과 교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회수하였다.

질문지의 조사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회수된 수는 894명이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에서 전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성의가 없는 것은 제외하고 실제로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된 표집수는 860명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배경변인별 표집인원은 <表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조사도구의 구성내용 및 문항수

영역	문항 번호	내 용	성향차원			총계
			인 지	정 의	의 지	
민족	1	애국심 민족적 자부심 충효사상에 대한 태도	1	1	1	3
	2					
	3					
국가	4	국가 동일시 국민적 자부심 조국애	1	1	1	3
	5					
	6					
정치	7	국회권한 강화 여부 지도자의 국민요구 충족도 투표에 대한 인식 정치적 관심도 정당의 국민의사 반영도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도	1	1	1	8
	8		1			
	9		1			
	10		1			
	11		1			
	12		1			
	13		1			
사회	14	빈부의 심화정도 계층의식 우리사회의 배급사상 사회적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	1	1	1	4
	15		1			
	16		1			
	17		1			
통일	18	평화통일 정책의 속지도 북한동포에 대한 감정 통일방식에 대한 인식	1	1	1	3
	19					
	20					
안보	21	평화유지와 핵무기 보유 안보태세에 대한 인식 국토방위의 의지	1	1	1	3
	22					
	23					
	24					
합 계			12	6	6	24

〈표 2〉 지역별 질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지 역 별	질문지 배부수	회수된 수	사용불가 능한 수	유효한 수	회 수 율 (%)
제 주 시	460	458	16	442	99.57
서 귀 포 시	100	99	3	96	99.00
북 제 주 군	180	178	3	175	98.89
남 제 주 군	180	159	12	147	88.33
합 계	920	894	34	860	97.17

3. 資料處理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제주대학교 전자계산소에서 모두 전산 처리 되었으며, 사용된 통계치는 평균(M), 백분비(%), 표준편차(SD)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전체 및 背景變因別 각 집단간에 평균(M)과 백분비(%)를 가지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경향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5단계의 반응분포를 대체로 '확실히 그렇다'와 '그런 것 같다'를 합쳐 '그렇다'로, '아닌 것 같다'와 '확실히 아니다' 합쳐 '아니다'로 합산 제시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경변인별 집단간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F-검증을 사용하였고, 집단간에 차이가 거의 없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반응결과만 제시 하기로 하였다.

〈표 3〉 배경변인별 표집 인원

배경 변인	변 인 구 분	인 원	구성비(%)	계
성 별	남	428	49.8	860
	여	432	50.2	
학 년 별	1 학 년	334	38.8	860
	2 학 년	334	38.8	
	3 학 년	192	22.3	
학 교 별	인 문 고	573	66.6	860
	상 업 고	287	33.4	
가 정 의 생활 정도 별	상	33	3.8	860
	중	769	89.4	
	하	58	6.7	
가 장 의 학 력 별	국	123	14.3	860
	중 고	605	70.3	
	대	119	13.8	
	기	13	1.5	
보 호 자 의 직 업 별	농 수 산 업	329	38.3	860
	상업 및 서비스업	233	27.1	
	회 사 원	65	7.6	
	공 무 원	92	10.7	
	기 타	141	16.4	

IV. 結果 및 論議

개념모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政治意識은 내용차원과 性向次元別로 제작된 24문항에 대한 표집대상들의 반응결과를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반응경향 및 반응분포를 제시하고 둘째, 표집 대상의 배경변인별 有意한 差가 있는가를 분석하여 그 유의한 차의 결과를 중심으로 반응경향을 해석하고 논의하며 셋째, 각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를 차례로 분석하면서 논의하여 넷째, 전체 및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거나, 각 문항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반응결과를 종합해서 제시하기로 한다.

1. 民族·國家領域

민족·국가영역은 민족과 국가 차원으로 나누고 그것을 성향차원에 따라 분석하기로 한다.

1) 민족차원

국가공동체의식 내지 연대의식의 중핵을 차지하는 고등학생들의 民族意識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3개의 문항을 설정하였다. 이들 문항을 성향차원별로 분류하면, 認知水準에서는 애국심에 관한 인식, 情意水準에서는 민족적 자부심에 대한 인식, 意志水準에서는 충효사상에 대한 태도 등이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는 위에서 제시된 순서에 따라 분석하기로 한다.

(1) 애국심

고등학생들의 애국심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애국심이 강하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61.7%)이 부정적 반응(22.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고등학생들의 애국심이 강하다는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성별($P<0.001$)과 학교별($P<0.05$)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남학생

(67.8%)이 여학생(55.6%)보다 애국심이 강하다는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별로는 인문고(61.4%)보다 상업고(62.1%)가 긍정적 반응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로 보면 3학년(63.5%), 1학년(62.0%), 2학년(60.2%)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가정의 생활정도별로는 상(66.7%), 중(62.1%), 하(53.4%)의 순이며, 보호자의 직업별로는 농수산업(67.8%), 회사원(61.5%), 공무원(57.6%), 상업 및 서비스업(53.6%)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애국심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하다	그런것 같다	잠모르다	아닌것 같다	확실하지 않다	
860	3.55	1.11	19.7	42.0	15.8	19.1	3.4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하다	그런것 같다	잠모르다	아닌것 같다	확실하지 않다	
성별	남 여	49.8 50.2	3.70 3.41	1.11 1.08	1.06	24.8 14.6	43.0 41.0	13.6 18.1	14.7 23.6	4.0 2.8	***
학년별	1학년 2학년 3학년	38.8 38.8 22.3	3.60 3.51 3.56	1.09 1.11 1.14	0.56	20.7 18.3 20.3	41.3 41.9 43.2	18.0 15.3 13.0	17.1 21.3 19.3	3.0 3.3 4.2	
학교별	인상 문고 고고	66.6 33.4	3.52 3.61	1.11 1.10	1.01	18.5 22.0	42.9 40.1	14.0 19.5	21.6 14.3	3.0 4.2	*
가정생활정도별	상 중 하	3.8 89.4 6.7	3.55 3.57 3.36	1.20 1.09 1.32	0.93	21.2 19.4 22.4	45.5 42.7 31.0	3.0 16.1 19.0	27.3 19.1 15.5	3.0 2.7 12.1	
가정경제상태별	극중대 고 중 중 하	14.3 70.3 13.8 1.5	3.59 3.57 3.48 3.23	1.10 1.09 1.20 1.30	0.62	20.3 18.8 23.5 15.4	41.5 43.8 33.6 38.5	18.7 16.0 12.6 7.7	15.4 18.0 27.7 30.8	4.1 3.3 2.9 7.7	
보호자의 직업	농수 업 서비스 업 회사 원 공 무원 기 타	38.3 27.1 7.6 10.7 16.4	3.67 3.41 3.54 3.42 3.60	1.11 1.10 1.17 1.07 1.09	2.40	23.1 16.3 21.5 13.0 20.6	44.7 37.3 40.0 44.6 42.6	13.1 19.3 13.8 17.4 16.3	14.9 24.9 20.0 21.7 17.7	4.3 2.1 4.6 3.3 2.8	

* P<0.05 ** P<0.01 *** P<0.001

(2) 민족적 자부심

민족적 자부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 중의 하나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전체 반응경향은 민족적 자부심에 대한 긍정적 반응(57.9%)이 부정적 반응(20.0%)보다 더 높게 나타나, 민족적 자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는 다음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성별($P<0.05$)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으며, 민족적 자부심의 긍정도는 남학생(61.6%)이 여학생(54.2%)보다 더 높은 편이며, 그외 배경변인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학년별로는 2학년(58.7%)과 1학년(58.3%)이 3학년(55.7%)보다 높게, 가정의 생활 정도별로는 중(58.4%)과 상(57.6%)이 하(51.8%)보다 긍정적 반응이 더 높게, 가장의 학력별로는 대졸(66.4%), 국졸(59.3%), 중·고졸(58.4%), 기타(46.2%)의 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는데, 특히 가장의 대졸출신인 학생들이 민족적 자부심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 민족적 자부심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60	3.68	1.31	25.9	32.0	22.1	17.0	3.0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여	49.8 50.2	3.70 3.52	1.15 1.10	1.10	30.1 21.8	31.5 32.4	19.6 24.5	15.2 18.8	3.5 2.5	
학년별	1학년 2학년 3학년	38.8 38.8 22.3	3.67 3.58 3.55	1.14 1.11 1.15	0.87	30.2 22.2 25.0	28.1 36.5 30.7	22.5 22.2 21.4	16.8 15.3 20.3	2.4 3.9 2.6	
학교별	인문고 상업고	66.6 33.4	3.61 3.59	1.11 1.17	1.10	26.2 25.4	31.1 33.8	23.0 20.2	17.6 15.7	2.1 4.9	
가정의생활정도별	상 중 하	3.8 89.4 6.7	3.67 3.62 3.43	1.34 1.11 1.26	0.79	39.4 25.4 25.9	18.2 33.0 25.9	18.2 22.5 19.0	18.2 16.4 24.1	6.1 2.7 5.2	
가장 의 학 력	국 중 대 기	졸 출 졸 출 졸 출 졸 출	14.3 70.3 13.8 1.5	3.66 3.56 3.80 3.54	1.11 1.12 1.17 1.33	1.56	27.6 23.6 34.5 38.5	31.7 32.6 31.9 7.7	21.1 23.3 16.8 23.1	17.9 17.4 12.6 30.8	1.6 3.1 4.2 0
보호지의직업별	농수산업 상업 서비스업 회사 공무원 기타	38.3 27.1 7.6 10.7 16.4	3.57 3.57 3.63 3.61 3.74	1.12 1.13 1.10 1.18 1.16	0.67	24.0 24.0 24.6 29.3 31.9	32.5 33.5 33.8 25.0 31.9	22.5 21.0 24.6 27.2 18.4	18.5 18.5 13.8 14.1 14.2	2.4 3.0 3.1 4.3 3.5	

* p<0.05



(3) 충효사상에 대한 태도

우리의 전통 사상 중의 하나인 충효사상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옛부터 내려온 충효사상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 6>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충효사상에 대한 긍정적 반응(89.9%)이 부정적 반응(4.3%)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충효사상은 계속 지켜야 할 것으로 믿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6>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보면, 가정의 생활정도별 (P<0.05)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으며, 생활정도 하(91.4%), 중(90.2%), 상(78.8%)의 순으로 나고 있다.

긍정적 반응비율이 비교적 높은 집단은 3학년(92.2%), 인문고(91.8%), 생

활정도 하(91.4%), 상업 및 서비스업(91.4%) 등이며, 비교적 낮은 집단은 상업고(86.1%), 1학년(87.5%), 생활정도 상(78.8%), 회사원(87.7%) 등이다.

특히 생활정도가 상류층 학생들이 충효사상에 대한 긍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특이하다 하겠다.

<표 6> 충효사상에 대한 태도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60	4.50	0.82	65.6	24.3	5.8	3.5	0.8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여	49.8	4.52	0.82	1.01	67.1	23.4	5.1	3.5	0.9
		50.2	4.49	0.82		64.1	25.2	6.5	3.5	0.7
학년별	1	38.8	4.44	0.90	1.48	63.8	23.7	7.2	3.9	1.5
	2	38.8	4.54	0.78		67.7	23.4	5.1	3.6	0.3
	3	22.3	4.54	0.75		65.1	27.1	4.7	2.6	0.5
학교별	인상	66.6	4.55	0.77	1.43	67.2	24.6	4.9	2.6	0.7
	문고	33.4	4.41	0.92		62.4	23.7	7.7	5.2	1.0
가정생활정도별	상 하	3.8	4.15	1.25	3.52	57.6	21.2	6.1	9.1	6.1
		89.4	4.52	0.79		66.4	23.8	6.0	3.3	0.5
		6.7	4.43	0.86		58.6	32.8	3.4	3.4	1.7
가족의별	국 중 대 기	14.3	4.50	0.84	0.09	66.7	22.8	5.7	4.1	0.8
		70.3	4.51	0.81		65.5	25.1	5.3	3.3	0.8
		13.8	4.47	0.86		64.7	23.5	6.7	4.2	0.8
		1.5	4.46	0.88		69.2	7.7	23.1	0	0
보호자의별	농 수 산 업 사 회 공 기	38.3	4.50	0.85	0.44	66.3	23.7	4.6	4.6	0.9
		27.1	4.55	0.72		65.2	26.2	6.9	1.3	0.4
		7.6	4.40	0.90		60.0	27.7	4.6	7.7	0
		10.7	4.52	0.78		65.2	25.0	7.6	1.1	1.1
		16.4	4.48	0.90		67.4	20.6	6.4	4.3	1.4

* p<0.05

2) 국가차원

국가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3개 문항이 설정되었다. 이들 문항을 성향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의식내용을 제시하면, 인지수준에서는 국가 동일시에 대한 인식, 정의수준에서는 국민적 자부심에 대한 인식, 의지수준에서는 조국애에 대한 태도 등이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는 위에서 제시된 순서에 따라 분석하기로 한다.

(1) 국가 동일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국가가 망하면 결국 나도 망한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 7>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74.5%)이 부정적 반응(15.7%)보다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7>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학교별 ($P < 0.05$)과 가정의 생활정도별 ($P < 0.05$)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으며, 인문교(75.1%)가 상업교(73.5%)보다 비교적 더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생활정도별로는 생활정도 중(75.4%), 상(69.7%), 하(65.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 동일시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집단은 남학생(75.7%), 3학년(79.7%), 대졸(83.2%), 상업 및 서비스업(76.4%) 등이며, 낮은 집단은 여학생(73.4%), 1학년(72.8%), 국졸(71.6%), 공무원(65.0%) 등이다.

<표 7> 국가 동일시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 다	아 닌 것 같 다	확실 히 아 니 다	계
860	4.10	1.26	57.3	17.2	9.8	9.7	6.0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크롭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여	49.8 50.2	4.15 4.05	1.28 1.28	1.05	61.0 53.7	14.7 19.7	9.8 9.7	7.2 12.0	7.2 4.9
학년별	1학년 2학년 3학년	38.8 38.8 22.3	4.09 4.03 4.24	1.29 1.28 1.17	1.76	58.7 53.3 62.0	14.1 20.1 17.7	10.8 10.2 7.3	10.2 9.6 8.9	6.3 6.9 4.2
학교별	인상 무엇 고교	66.6 33.4	4.12 4.06	1.21 1.36	1.25	56.4 59.2	18.7 14.3	9.9 9.4	10.6 7.7	4.4 9.4
가정 정도의 생활 의별	상 중 하	3.8 89.4 6.7	3.76 4.14 3.74	1.70 1.20 1.63	4.03	57.6 57.5 55.2	12.1 17.9 10.3	0 10.4 6.9	9.1 9.8 8.6	21.2 4.4 19.0
가족 관계 의별	근 중 대 기	14.3 70.3 13.8 1.5	4.00 4.09 4.30 3.92	1.34 1.26 1.12 1.61	1.39	54.5 56.9 62.2 61.5	17.1 16.7 21.0 7.7	11.4 10.2 5.9 7.7	8.1 10.6 6.7 7.7	8.9 5.6 4.2 15.4
보 직 업 의 별	농 수 산 업 비 업 사 부 기	38.3 27.1 7.6 10.7 16.4	4.10 4.12 3.94 4.11 4.13	1.24 1.25 1.39 1.31 1.25	0.31	56.2 57.1 55.4 60.9 58.9	18.2 19.3 12.3 14.1 15.6	10.3 9.0 10.8 5.4 12.1	9.7 8.2 13.8 14.1 7.1	5.5 6.4 7.7 5.4 6.4

* p<0.05

(2) 국민적 자부심

한국에 태어난 것에 대한 자부심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나는 한국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 8>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국민적 자부심에 대한 긍정적 반응(66.0%)이 부정적 반응(14.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표 8> 국민적 자부심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 히 크 롭 다	그 런 것 같 다	잘 모 르 다	아 닌 것 같 다	확 실 히 아 니 다	
860	3.93	1.19	45.0	21.0	20.0	9.7	4.3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여	49.8 50.2	4.12 3.74	1.16 1.20	1.08	53.7 36.3	19.4 22.7	15.9 24.1	6.8 12.5	4.2 4.4	***
학년별	1학년 2학년 3학년	38.8 38.8 22.3	3.95 3.96 3.83	1.27 1.18 1.07	0.87	49.7 46.4 34.4	17.7 21.0 27.1	17.4 18.0 28.1	8.7 11.7 7.8	6.6 3.0 2.6	
학교별	인문고 상업고	66.6 33.4	3.90 3.98	1.17 1.24	1.13	42.6 49.8	22.2 18.8	22.0 16.0	9.4 10.1	3.8 5.2	
가정의 생활정도별	상 중 하	3.8 89.4 6.7	4.00 3.94 3.71	1.37 1.17 1.38	1.11	54.5 44.9 41.4	18.2 21.3 19.0	9.1 20.5 19.0	9.1 9.6 10.3	9.1 3.6 10.3	
가장의 학력별	국중고 대졸 기타	14.3 70.3 13.8 1.5	4.02 3.91 3.91 4.08	1.17 1.21 1.16 1.04	0.35	50.4 44.5 42.0 46.2	17.1 21.3 23.5 23.1	18.7 20.0 21.0 23.1	11.4 9.3 10.1 7.7	2.4 5.0 3.4 0	
보호자의 직업별	농수산업 상업서비스업 회공기	38.3 27.1 7.6 10.7 16.4	3.98 3.85 3.78 3.87 4.03	1.18 1.21 1.23 1.15 1.21	0.93	47.1 43.3 38.5 38.0 50.4	20.7 17.6 23.1 29.3 21.3	19.8 24.0 23.1 17.4 14.2	8.2 11.2 9.2 12.0 9.2	4.3 3.9 6.2 3.3 5.0	

*** $p < 0.001$



<표 8>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성별 ($P < 0.001$)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으며, 남학생(73.1%)이 여학생(59.05%)보다 긍정적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의 생활정도별로 보면 상(72.7%), 중(66.2%), 하(60.4%)의 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으며,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집단은 상업고(68.6%), 국졸(67.5%), 농수산업(67.8%) 등이며, 낮게 나타나는 집단은 인문고(64.8%), 대졸(65.5%), 상업 및 서비스업(60.9%) 등이다.

특히 가정의 생활정도별로는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적 자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가정의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국민적 자부심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3) 조국애

국제화 시대에 즈음하여 이민, 취업 등 조국애의 약화 현상이 있는 것 같아 간접적인 방법으로 조국애를 측정하려고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조국에서 살겠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 9>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조국애에 대한 긍정적 반응(49.9%)이 부정적 반응(23.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9>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성별($P < 0.001$)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으며, 남학생(57.0%)이 여학생(42.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국애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은 집단은 1학년(52.1%), 가정의 생활정도 상(60.6%), 국졸(60.2%), 농수산업(54.7%) 등이며, 낮은 집단은 3학년(45.3%), 가정의 생활정도 하(39.7%), 대졸(46.3%), 회사원(46.2%) 등이다.

그러나 고학년일수록 그리고 가장의 학력이 높을수록 조국애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반응결과로 볼 때 부정적 반응이 잘 모르겠다(26.9%)를 포함하면 50.2%로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국가를 초월한 긍정적 삶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표 9> 조국애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60	3.50	1.33	33.0	16.9	26.9	13.6	9.6	100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를 보면, 국회의 권한강화에 대한 긍정적 반응(38.1%)이 부정적 반응(33.2%)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국회권한 강화에 대한 인식성향이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한 전체 및 배경변인별 반응결과는 다음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0> 국회권한 강화여부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 다	아 닌 것 같 다	확실 히 아 니 다	
860	3.12	1.30	19.5	18.6	28.7	20.2	13.0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 히 그 렇 다	그 런 것 같 다	잘 모 르 다	아 닌 것 같 다	확 실 히 아 니 다
성별	남 여	49.8	3.16	1.31	1.05	21.0	18.0	30.3	16.1	14.0
		50.2	3.07	1.28		18.1	19.2	26.6	24.1	12.0
학년별	1 2 3	38.8	3.11	1.31	0.25	20.7	15.6	31.7	18.0	14.1
		38.8	3.09	1.32		20.4	18.3	24.0	24.9	12.6
		22.3	3.17	1.23		16.1	24.5	31.8	15.6	12.0
학교별	인상 문 고	66.6	3.02	1.26	1.15	15.5	20.1	29.3	21.5	13.6
		33.4	3.30	1.35		27.5	15.7	27.5	17.4	11.8
가정 의 생 활 수 준	상 중 하	3.8	3.52	1.52	2.34	36.4	24.2	12.1	9.1	18.2
		89.4	3.08	1.27		18.5	17.6	30.4	21.1	12.5
		6.7	3.29	1.43		24.1	29.3	15.5	13.8	17.2
가 장 의 학 력 수 준	국 공 대 기	14.3	3.04	1.31	0.77	18.7	17.1	27.6	22.8	13.8
		70.3	3.14	1.30		20.0	18.5	29.4	19.2	12.9
		13.8	3.04	1.27		16.8	19.3	27.7	23.5	12.6
		1.5	3.54	1.45		30.8	30.8	15.4	7.7	15.4
보 호 자 의 업 종	농 수 업 사 회 공 기	38.3	3.15	1.32	0.22	21.3	17.0	31.3	16.1	14.3
		27.1	3.05	1.29		18.0	18.9	25.3	25.8	12.0
		7.6	3.09	1.35		20.0	18.5	29.2	15.4	16.9
		10.7	3.13	1.22		16.3	21.7	30.4	21.7	9.8
		16.4	3.14	1.30		19.9	27.0	21.3	12.1	

** p<0.01

<표 10>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학교별

($P < 0.01$)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으며, 인문고(35.6%)보다 상업고(43.2%)가 긍정적 반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39.0%)이 여학생(37.3%)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자가 여자보다 국회의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성향을 보이고 있다.

학년별로는 3학년(40.6%), 2학년(38.7%), 1학년(36.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정의 생활정도별로는 상(60.6%), 하(53.4%), 중(36.1%)의 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정의 생활정도가 중인 경우 긍정적 반응이 36.1%인데 비하여 부정적 반응이 잘 모르겠다(30.4%)를 포함하여 64%나 되고 있으며, 보호자의 직업별로도 긍정적 반응보다 부정적 반응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된다.

(2) 지도자의 국민요구 충족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국민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국민의 원하는 바를 잘 실현시켜 주고 있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경향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반응결과만 <표 11>에 제시하기로 한다.

<표 11> 지도자의 국민요구 충족도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60	2.57	1.13	6.5	15.5	22.9	38.4	16.7	100

<표 11>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22.0%)보다 부정적 반응(55.1%)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문민정부시대에 들어와서도 지난 과거의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감이 아직 상당히 남아있는 듯 하다.

(3) 투표에 대한 인식

투표에 대한 인식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적당한 후보가 없으면 투표를 기권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 12>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44.9%)이 부정적 반응(40.1%)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잘 모르겠다(15.0%)를 포함하면 부정적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보아서 기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인식이 상당히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 투표에 대한 인식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60	3.09	1.54	27.9	17.0	15.0	16.9	23.2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여	49.8 50.2	3.11 3.08	1.54 1.55	1.02	27.8 28.0	17.1 16.9	15.9 14.1	16.4 17.4	22.9 23.6
학년별	1학년	38.8	3.14	1.56	0.67	30.8	14.1	15.3	17.7	22.2
	2학년	38.8	3.02	1.50		23.1	19.8	16.8	16.8	25.7
	3학년	22.3	3.15	1.60		31.3	17.2	11.5	15.6	24.5
학교별	이상	66.6	3.10	1.54	1.01	27.7	17.3	15.2	16.6	23.2
	무함고	33.4	3.09	1.55		28.2	16.4	14.6	17.4	23.3
가정소득별	상위	3.8	2.76	1.58	0.95	24.2	9.1	15.2	21.2	30.3
	하위	89.4	3.10	1.54		28.0	17.3	14.8	16.6	23.3
가족의 학력	고졸	14.3	3.37	1.43	4.81	30.9	17.9	23.6	12.2	15.4
	대졸	70.3	3.05	1.54		26.6	17.5	14.4	17.4	24.1
	대기	13.8	2.90	1.62		27.7	12.6	10.9	19.3	29.4
보훈자의 직업	농업	38.3	3.03	1.53	0.91	25.2	18.2	14.9	17.3	24.3
	수업	27.1	3.08	1.55		28.3	15.9	14.6	18.0	23.2
	서비스업	7.6	3.42	1.52		35.4	20.0	12.3	15.4	16.9
회복기간	1년 이하	10.7	3.16	1.54	0.91	28.3	19.6	14.1	16.3	21.7
	1년 이상	16.4	3.08	1.57		29.8	12.8	17.7	14.9	24.8

** p<0.01

<표 12>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가장의 학

력별($P < 0.01$)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으며, 국졸(48.1%), 중·고졸(44.1%), 대졸(40.3%)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으나 대졸의 경우는 48.7%나 부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만 하다. 학년별로는 3학년(48.5%), 1학년(44.9%), 2학년(42.9%)순이며, 학교별로는 인문고(45.0%)가 상업고(44.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정의 생활정도별로 보면 생활정도가 상(51.5%), 중(49.9%), 하(36.2%)의 순으로 부정적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호자의 직업별로는 회사원(55.4%), 공무원(47.9%), 상업 및 서비스업(44.2%), 농수산업(43.4%)의 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정의 생활정도별로 중·상인 가정과 가정이 대졸인 학생들이 부정적 반응이 높은 것으로 보아 적당한 후보가 없다고 해서 기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4) 정치적 관심도

정치적 대상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나는 정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라는 문항을 부정적으로 제시한 결과, 다음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치에 대한 관심(47.4%)이 무관심(30.2%)보다 높은 반응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3>에 제시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가정의 생활정도별($P < 0.01$)과 학년별($P < 0.05$)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으며, 생활정도 하(51.7%)와 상(51.5%)이 중(46.9%)보다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년별로 보면 3학년(54.2%), 2학년(50.3%), 1학년(40.8%)의 순으로 나타나며 고학년일수록 정치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남학생(47.4%)과 여학생(47.5%)이 정치적 관심도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별로는 인문고(50.7%)가 상업고(40.8%)보다 정치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의 학력별로 보면, 대졸(52.1%), 중·고졸(47.1%), 국졸(43.9%)의 순이며, 보호자의 직업별로는 농수산업(51.4%), 공무원(49.0%), 상업 및 서비스업(48.5%), 회사원(38.5%)의 순으로 정치적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 정치적 관심도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 다	아 닌 것 같 다	확실 히 아 니 다	
860	2.71	1.23	8.1	22.1	22.4	28.1	19.3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 히 그 렇 다	그 런 것 같 다	잘 모 르 다	아 닌 것 같 다	확 실 히 아 니 다
성별	남 여	49.8 50.2	2.69 2.74	1.24 1.23	1.02	7.2 8.8	22.9 21.3	22.4 22.5	26.4 29.9	21.0 17.6
학년별	1학년 2학년 3학년	38.8 38.8 22.3	2.87 2.62 2.60	1.26 1.19 1.23	4.52	11.7 5.7 5.7	21.3 21.6 24.5	26.3 22.5 15.6	24.0 29.9 32.3	16.8 20.4 21.9
학교별	인상 무엇 고 고	66.6 33.4	2.68 2.79	1.23 1.23	1.01	7.5 9.1	22.9 20.6	18.8 29.6	31.2 22.0	19.5 18.8
가정 의 생 활 수 준 의 별	상 중 하	3.8 89.4 6.7	2.70 2.72 2.64	1.26 1.22 1.42	0.12	9.1 7.5 13.8	21.2 22.5 17.2	18.2 23.0 17.2	33.3 28.3 22.4	18.2 18.6 29.3
가 학 장 래 의 별	국 중 대 기 고 졸 출 타	14.3 70.3 13.8 1.5	2.66 2.74 2.66 2.69	1.11 1.24 1.30 1.44	0.21	4.9 8.6 7.6 15.4	17.9 22.1 26.9 15.4	33.3 22.1 13.4 15.4	26.0 28.4 28.6 30.8	17.9 18.7 23.5 23.1
보 직 업 의 별	농 수 업 사 회 공 기 수 업 사 회 공 기 업 무 원 위 탁	38.3 27.1 7.6 10.7 16.4	2.58 2.73 2.91 2.89 2.79	1.21 1.21 1.30 1.28 1.22	1.97	6.7 7.7 9.2 14.1 7.1	18.8 22.7 30.8 21.7 24.8	23.1 21.0 21.5 15.2 28.4	28.9 31.3 18.5 37.0 19.9	22.5 17.2 20.0 12.0 19.9

* p<0.05 ** p<0.01

(5) 정당의 국민의사 반영도

현대의 代議制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당은 불가결한 존재이다. 정당은 정치 과정에 있어서 주로 여론형성 기능을 담당하며, 아울러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정치집단이다.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당의 국민의사 반영도에 대한 긍정적 반응(12.0%)보다 부정적 반응(59.3%)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반응결과는 정당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충분한 역할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4>에 제시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학년별(p<0.01)과 학교별(p<0.01) 및 가장의 학력별(p<0.01)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으며, 3학년(66.7%), 2학년(62.3%), 1학년(52.1%)의 순으로 부정적 반응이 낮고, 학교별로는 인문고(62.2%)가 상업고(53.7%)보다 부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가장의 학력별로는 대졸(68.9%), 중.고졸(58.7%), 국졸(53.7%)의 순으로 부정적 반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학년일수록 또 가장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공무원 가정의 학생일 수록 부정적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표 14> 정당외의 국민의사 반영도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크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른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60	2.36	0.96	2.0	10.0	28.7	41.0	18.3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크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른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여	49.8 50.2	2.33 2.40	0.99 0.93	1.13	3.0 0.9	7.7 12.3	29.0 28.5	39.7 42.4	20.6 16.0	
학년별	1학년 2학년 3학년	38.8 38.8 22.3	2.49 2.32 2.23	0.99 0.98 0.85	4.87	2.4 2.1 1.0	12.3 10.2 5.7	33.2 25.4 26.6	35.6 41.9 49.0	16.5 20.4 17.7	**
학교별	인상 상업고 문고	66.6 33.4	2.31 2.47	0.90 1.04	1.32	0.9 4.2	9.6 10.8	27.4 31.4	44.0 35.2	18.2 18.5	**
가정 의 생 활 수 준	상 중 하	3.8 89.4 6.7	2.48 2.37 2.22	1.12 0.94 1.12	0.89	3.0 1.7 5.2	15.2 10.1 5.2	33.3 28.5 29.3	24.2 42.8 27.6	24.2 16.9 32.8	
가 장 의 학 력	국 중 대 고 졸 출 신 출 신	14.3 70.3 13.8 1.5	2.61 2.36 2.18 2.15	0.96 0.97 0.82 0.90	4.50	4.9 1.7 0.8 0	12.2 10.9 4.2 0	29.3 28.8 26.1 46.2	46.3 38.7 49.6 23.1	7.3 20.0 19.3 30.8	**
보 호 자 의 직 업	농 수 산 업 자 업 자 공 직 자 업 자 공 직 자 업 자 공 직	38.3 27.1 7.6 10.7 16.4	2.40 2.32 2.40 2.12 2.49	0.97 0.93 1.07 0.82 0.98	2.38	3.0 1.3 1.5 0 2.1	9.1 9.9 16.9 3.3 13.5	29.8 26.6 24.6 30.4 30.5	41.0 44.2 33.8 41.3 39.0	17.0 18.0 23.1 25.0 14.9	

** p<0.01

(6)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

행정부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행정부의 하는 일은 믿을 만 하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경향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반응결과만 다음 <표 15>에 제시하기로 한다.

<표 15>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60	2.54	0.91	2.0	9.4	43.4	31.4	13.8	100

<표 15>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고등학생들의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긍정적 반응(11.4%)보다 부정적 반응(45.2%)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행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감이 팽배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별로는 상업고보다 인문고, 가정의 생활정도별로는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부정적 반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무원 가정의 학생들이 부정적 반응(52.2%)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7) 정치능력감

우리 나라는 서구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이후 40여년간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민주정치 경험을 해 왔다. 그 결과 건국초기에 가졌던 소박하고 막연한 기대에 비해서 훨씬 현실적인 정치의식을 갖게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현재 고등학생의 정치적 능력감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은 훌륭하게 민주주의를 키워갈 자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경향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반응결과만 다음 <표 16>에 제시하

기로 한다.

<표 16> 정치능력감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크롭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60	3.46	1.16	21.3	31.6	24.1	17.8	5.2	100

<표 16>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52.9%)이 부정적 반응(23.0%)보다 훨씬 높게 가지고 있어서, 민주정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집단별로 볼때, 비교적 정치능력감이 높게 나타난 집단은 남학생(56.1%), 1학년(54.5%), 상업고(55.4%), 가정의 생활정도 중(53.3%), 중·고졸(53.0%), 공무원(55.5%) 등이며, 낮은 집단은 3학년(44.2%), 가정의 생활정도 하(48.3%), 국졸(52.0%), 상업 및 서비스업(47.6%) 등이다.

(8) 정부시책을 지지하려는 의지

정부시책에 대한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정부의 시책에는 반드시 따르지 않겠다”라는 부정적 문항을 제시한 결과, 다음 <표 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부시책을 지지하는 긍정적 반응(48.9%)이 부정적 반응(19.7%)보다 더 높게 나타나, 마음에 맞지 않는 정부시책이라도 따라야 한다는 반응을 높게 보이고 있다.

<표 17>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보면, 성별($p < 0.001$)과 학교별($p < 0.05$) 및 가정의 학력별($p < 0.05$)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으며, 성별로는 정부시책을 지지하려는 의지가 여학생(56.1%)이 남학생(41.8%)보다 높게, 학교별로는 인문고(51.9%)가 상업고(43.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외 배경변인별로는 유의한 차가 없으나 정부시책을 지지하려는 의지가 비교적 높은 집단은 3학년(54.2%)과 공무원(57.6%)이며, 비교적 낮은 집단은 1학년(45.8%)과 농·수산업(44.1%) 등이다. 특히 공무원 가정의 학생들이 정부시책을 지지하려는 의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7> 정부시책에 대한 지지도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60	2.64	1.20	11.0	8.7	31.4	30.8	18.1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여	49.8 50.2	2.82 2.45	1.23 1.14	1.17	14.7 7.4	9.3 8.1	34.1 28.5	27.3 34.3	14.5 21.8	***
학년별	1학년 2학년 3학년	38.8 38.3 22.3	2.70 2.61 2.57	1.24 1.17 1.16	0.89	12.9 10.5 8.9	9.0 7.2 10.9	32.3 33.2 26.0	27.2 30.8 37.0	18.6 18.3 17.2	
학교별	인상 문업 고교	66.6 33.4	2.58 2.75	1.16 1.26	1.18	9.4 14.3	8.9 8.4	29.8 34.1	33.9 24.7	18.0 18.5	*
가정소득	상 중 하	3.8 89.4 6.7	2.67 2.64 2.62	1.22 1.19 1.32	0.02	12.1 10.8 13.8	6.1 8.7 10.3	36.4 31.7 22.4	27.3 30.9 31.0	18.2 17.8 22.4	
가족의 학력	국립대 고졸 고졸이하	14.3 70.3 13.8 1.5	2.89 2.61 2.49 2.85	1.23 1.20 1.09 1.41	2.63	13.8 11.1 7.6 15.4	13.0 8.3 5.9 15.4	36.6 30.1 31.9 30.8	21.1 31.9 37.0 15.4	15.4 18.7 17.6 23.1	*
보육사업	농수산물 수업비 산림사업 취업지원 사부 회복기	38.3 27.1 7.6 10.7 16.4	2.76 2.70 2.62 2.38 2.43	1.23 1.24 1.17 1.07 1.10	3.13	13.4 13.7 10.8 5.4 5.0	9.7 8.2 6.2 6.5 9.9	32.8 28.8 33.8 30.4 31.2	27.7 32.6 32.3 35.9 31.2	16.4 16.7 16.9 21.7 22.7	

* p<0.05

*** p<0.001

2) 사회차원

사회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4개 문항이 설정되었다. 이들 문항을 성향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의식내용을 제시하면, 인지수준에서는 빈부의 심화정도, 우리사회의 배금사상, 사회적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 등이다. 정의수준에서는 계층의식에 대한 감정이며, 의지수준의 문항은 설정되지 못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는 위에서 제시된 순서에 따라 분석하기로 한다.

(1) 빈부의 심화정도

고등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빈부의 심화정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빈부의 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 18>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71.3%)이 부정적 반응(16.4%)보다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겠다.

<표 18> 빈부의 심화정도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계
860	3.88	1.16	37.0	34.3	12.3	12.2	4.2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9.8	3.73	1.23	1.32	33.2	33.4	13.1	14.3	6.1	***
	여	50.2	4.02	1.07		40.7	35.2	11.6	10.2	2.3	
학년별	1학년	38.8	3.99	1.17	6.41	44.9	27.8	13.8	8.7	4.8	**
	2학년	38.8	3.90	1.13		35.6	38.9	10.2	10.8	4.5	
	3학년	22.3	3.63	1.15		25.5	37.5	13.5	20.8	2.6	
학교별	인상	66.6	3.80	1.18	1.14	34.4	34.0	13.3	14.0	4.4	
	무림고	33.4	4.03	1.11		42.2	34.8	10.5	8.7	3.8	
가정소득수준	상위	3.8	4.03	1.21	0.34	45.5	33.3	6.1	9.1	6.1	
	중하	89.4	3.87	1.16		36.4	34.5	12.6	12.5	4.0	
가학차별의별	국중대기	14.3	4.01	1.09	1.20	42.3	30.9	14.6	9.8	2.4	
	고졸	70.3	3.86	1.18		36.5	35.4	10.6	12.6	5.0	
보좌자의별	농사	38.3	3.82	1.20	0.51	35.3	34.7	12.2	12.5	5.5	
	수업	27.1	3.88	1.19		39.1	31.3	11.6	14.2	3.9	
	사무	7.6	4.00	1.09		41.5	30.8	16.9	7.7	3.1	
	회계사	10.7	3.93	1.08		35.9	38.0	12.0	12.0	2.2	
부친의별	농사	16.4	3.92	1.11		36.2	37.6	12.1	10.6	3.5	
	회계사	16.4	3.92	1.11		36.2	37.6	12.1	10.6	3.5	

** p<0.01 *** p<0.001

<표 18>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성별(p<0.001)과 학년별(p<0.01)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으며 남학생(66.6%)

보다 여학생(75.9%)이 긍정적 반응이 높게 보이고 있으며, 학년별로는 2학년(74.5%), 1학년(72.7%), 3학년(63.0%)의 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별로는 인문고(68.4%)보다 상업고(77.0%)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상업고 학생들이 분배의 정의에 대한 인식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의 생활정도별로는 상(78.8%), 하(72.5%), 중(70.9%)의 순이며, 가장의 학력별로는 국졸(73.2%), 중·고졸(71.9%), 대졸(65.5%)의 순으로 나타나 중·고졸 이하가 대졸보다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2) 계층의식

고등학생들의 계층의식에 대한 인식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나와 생활정도가 같은 사람들과는 더욱 친근감이 든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배경변인별 집단간에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반응결과만을 <표 19>에 제시하기로 한다.

<표 19> 계층의식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60	3.78	1.21	33.7	34.7	14.5	10.1	7.0	100

<표 19>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68.4%)이 부정적 반응(17.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 사회에는 어느 정도의 계층의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년별로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긍정적 반응이 높으며, 가정의 생활정도별로는 생활정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가장의 학력별로는 학력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일수록 긍정적 반응이 매우 높게 보이고 있어서, 자신보다

상류계층에 대해서 위화감을 깊게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우리 사회의 배금사상

고등학생들이 우리사회의 배금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사회는 돈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된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 20>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61.1%)이 부정적 반응(29.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0>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학교별($p < 0.01$)과 성별($p < 0.05$)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으며, 인문고(63.2%)가 상업고(56.8%)보다 높게 보이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63.6%)이 여학생(58.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황금만능사상에 대한 인식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교적 배금사상이 높게 나타난 집단은, 3학년(63.5%), 생활정도 상(66.7%), 대졸(62.2%), 상업 및 서비스업(64.4%) 등이며, 낮은 집단은 2학년(58.9%), 생활정도 하(53.5%), 국졸(57.8%), 회사원(53.9%) 등이다.

특히 가정의 생활정도별로는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반응이 높게 보이고 있으며, 가장의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은 가정의 학생일수록 배금사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4) 사회적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

고등학생들이 사회적 기회균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사회는 누구나 부지런히 노력하면 다 잘 살수 있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 21>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44.1%)과 부정적 반응(43.7%)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학교별($p < 0.001$)과 보호자의 직업별($p < 0.05$)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으며, 상업고(50.5%)가 인문고(41.0%)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의 직업별로는 농수산업(47.4%), 회사원(41.5%), 상업 및 서비스업(40.7%), 공무원(35.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전체적으로 볼때,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은 집단은 남학생 (47.5%), 1학년(48.2%), 생활정도 상(54.5%), 중.고졸(46.5%) 등이며, 특히 3학년(47.4%), 생활정도 하(48.3%), 공무원(54.4%)의 경우는 부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또 가정의 생활정도가 낮은 가정, 가장의 학력이 높은 가정일수록 부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고등학생들이 사회의 기회균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20> 우리 사회의 배금사상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크롭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60	3.46	1.42	29.2	31.9	9.2	14.8	14.9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크롭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여	49.8 50.2	3.56 3.36	1.36 1.48	1.19	29.7 28.7	33.9 29.9	11.4 17.2	12.6 16.9	12.4 17.4	*
학년별	1 2 3	38.8 38.8 22.3	3.46 3.39 3.58	1.50 1.40 1.31	1.08	33.2 25.4 28.6	28.4 33.5 34.9	6.6 10.2 12.5	14.1 16.2 13.5	17.7 14.7 10.4	
학교별	이상 무 고	66.6 33.4	3.50 3.38	1.38 1.51	1.21	27.6 32.4	35.6 24.4	8.7 10.5	15.0 14.3	13.1 18.5	**
가정 생활 정도	상 중 하	3.8 89.4 6.7	3.64 3.46 3.31	1.43 1.42 1.44	0.57	36.4 29.1 25.9	30.3 32.2 27.6	6.1 9.0 15.5	15.2 14.8 13.8	12.1 14.8 17.2	
가정 학력 의 별	고 중 초 기	14.3 70.3 13.8 1.5	3.45 3.43 3.50 4.23	1.39 1.44 1.39 0.93	1.37	28.5 29.1 28.6 46.2	29.3 31.9 33.6 38.5	14.6 8.1 10.1 7.7	13.8 15.2 14.3 7.7	13.8 15.7 13.4 0	
보 직 업 의 별	농 수 산 업 사 부 회 사 부 기 타	38.3 27.1 7.6 10.7 16.4	3.47 3.51 3.32 3.46 3.40	1.47 1.37 1.43 1.30 1.49	0.30	32.2 26.6 27.7 22.8 31.2	29.2 37.8 26.2 39.1 26.2	8.5 9.9 9.2 7.6 11.3	13.7 11.6 24.6 21.7 13.5	16.4 14.2 8.7 8.7 17.7	

* p<0.05 ** p<0.01

<표 21> 사회적 기회균등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계
860	3.17	1.38	26.0	18.1	12.2	34.3	9.4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여	49.8	3.25	1.39	1.02	26.9	20.6	14.3	27.3	11.0
		50.2	3.09	1.38		25.2	15.7	10.0	41.2	7.9
학년별	1학년	38.8	3.27	1.46	3.30	31.7	16.5	9.9	30.8	11.1
	2학년	38.8	3.20	1.39		26.9	18.0	11.7	34.7	8.7
	3학년	22.3	2.95	1.23		14.6	21.4	16.7	39.6	7.8
학교별	인문고	66.6	3.05	1.33	1.20	20.6	20.4	11.5	38.6	8.9
	상업고	33.4	3.41	1.46		36.9	13.6	13.2	25.8	10.5
가정의생활정도별	상 중 하	3.8	3.33	1.53	1.12	33.3	21.2	6.1	24.2	15.2
		89.4	3.18	1.38		26.1	18.3	12.0	34.7	8.8
		6.7	2.93	1.37		20.7	13.8	17.2	34.5	13.8
가장학력의별	국·고 중·대 졸 대 기	14.3	3.17	1.33	1.62	24.4	16.3	20.3	30.1	8.9
		70.3	3.22	1.40		28.3	18.2	9.9	34.9	8.8
		13.8	2.92	1.34		17.6	19.3	14.3	35.3	13.4
		1.5	3.00	1.29		15.4	23.1	15.4	38.5	7.7
보호자의직업별	농수산업 상업및 서비스업 회사원 공무원 기타	38.3	3.29	1.40	2.79	30.7	16.7	12.5	31.6	8.5
		27.1	3.06	1.36		22.7	18.0	11.2	38.6	9.4
		7.6	3.08	1.34		21.5	20.0	10.8	40.0	7.7
		10.7	2.85	1.31		15.2	20.7	9.8	42.4	12.0
		16.4	3.32	1.41		29.8	19.1	14.9	25.5	10.6

* p<0.05

*** p<0.001

3. 統一·安保領域

1) 통일차원

통일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3개의 문항이 설정되었다. 이들 문항을 성향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의식내용을 제시하면, 인지수준에서는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숙지도, 정의수준에서는 북한동포에 대한 감정, 의지수준에서는 국토방위의 의지 등이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는 위에서 제시된 순서에 따라 분석하기로 한다.

(1) 평화통일정책의 숙지도

고등학생들이 평화통일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평화통일 정책을 나는 잘 알고 있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 2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18.8%), 부정적 반응(34.4%), 잘 모르겠다(46.9%)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숙지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22>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가장의 학력별($p < 0.05$)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으며, 대졸(28.6%), 중·고졸(17.7%), 국졸(12.2%)의 순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대졸(38.7%)과 국졸(38.2%)도 부정적 반응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잘 모르겠다’는 반응까지 합치면 대졸도 28.6%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고등학생들이 통일정책에 대한 숙지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22> 평화통일정책의 숙지도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 응 구 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860	2.74	1.05	5.5	13.3	46.8	18.7	15.7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여	49.8 50.2	2.72 2.76	1.09 1.01	1.15	5.8 5.1	12.6 13.9	47.7 46.1	15.4 22.0	18.5 13.0	
학년별	1 2 3	38.8 38.8 22.3	2.68 2.79 2.75	1.07 1.01 1.07	0.94	5.7 5.1 5.7	12.6 13.5 14.1	43.1 51.2 45.8	21.6 16.2 18.2	17.1 14.1 16.1	
학교별	인문고 상업고	66.6 33.4	2.75 2.72	1.06 1.04	1.04	5.6 5.2	14.3 11.1	44.9 50.9	20.1 16.0	15.2 16.7	
가정의 생활정도별	상 중 하	3.8 89.4 6.7	3.03 2.72 2.88	1.07 1.03 1.20	1.95	6.1 4.9 12.1	27.3 12.9 10.3	42.4 46.8 50.0	12.1 19.8 8.6	12.1 15.6 19.0	
가장 학력의 별	국 중 대 기	졸 출 졸 출 타	14.3 70.3 13.8 1.5	2.60 2.73 2.88 3.46	0.98 1.02 1.21 0.88	3.3 4.3 12.6 15.4	8.9 13.4 16.0 23.1	49.6 48.9 32.8 53.8	21.1 17.4 24.4 7.7	17.1 16.0 14.3 0	
보호자의 직업별	농 수 상 업 서 회 공 기	산 업 및 비 사 원 원 타	38.3 27.1 7.6 10.7 16.4	2.78 2.69 2.74 2.72 2.76	1.03 1.05 1.18 1.05 1.04	0.28	5.8 4.7 6.2 4.3 6.4	11.6 13.3 20.0 17.4 11.3	52.3 45.1 35.4 38.0 48.2	15.5 19.7 18.5 26.1 19.9	14.9 17.2 20.0 14.1 14.2

* p<0.05

(2) 북한동포에 대한 감정

북한동포에 대한 고등학생들이 감정적 인식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북한 체제 아래 고생하는 동포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 23>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59.0%)이 부정적 반응(15.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북한동포에 대한 同情心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3>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가정의 생활정도별(p<0.05)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가정의 생활정도 상(72.7%), 중(58.7%), 하(55.2%)의 순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년별로는 1학년(60.7%), 2학년(59.6%), 3학년(55.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1,2학년이 3학년보다 동정심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의 학력별로 보면 국졸(60.2%), 중.고졸(59.5%), 대졸(55.4%) 순이며, 보호자의 직업별로는 농수산업(59.9%), 상업 및 서비스업(58.4%), 공무원(55.5%), 회사원(50.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전체로는 가장의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특이하다 하겠다.

<표 23> 북한동포에 대한 감정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60	3.65	1.09	25.2	33.8	25.5	11.9	3.6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9.8	3.64	1.13	1.15	26.9	31.5	25.0	12.4	4.2
		50.2	3.66	1.05		23.6	36.1	25.9	11.3	3.0
학년별	1학년	38.8	3.69	1.12	1.42	27.8	32.9	24.6	10.2	4.5
	2학년	38.8	3.68	1.05		24.6	35.0	26.9	10.5	3.0
	3학년	22.3	3.54	1.11		21.9	33.3	24.5	17.2	3.1
학교별	인상	66.6	3.65	1.07	1.12	24.6	34.6	25.3	12.7	2.8
	문고	33.4	3.65	1.13		26.5	32.4	25.8	10.1	5.2
가정인생 정도별	상 중 하	3.8	4.06	0.93	3.36	39.4	33.3	21.2	6.1	0
		89.4	3.65	1.08		24.8	33.9	25.9	12.1	3.3
		6.7	3.45	1.26		22.4	32.8	22.4	12.1	10.3
가학 장력 의별	국 중 대 기	14.3	3.73	0.93	0.36	22.8	37.4	30.9	8.1	0.8
		70.3	3.65	1.11		25.5	34.0	24.6	11.7	4.1
		13.8	3.59	1.17		27.7	27.7	23.5	17.6	3.4
		1.5	3.62	1.04		15.4	46.2	30.8	0	7.7
보호 자의 직업 의별	농 수 산 업 업 원 회 사 원 사 무 직 업 기	38.3	3.67	1.04	1.58	23.7	36.2	26.7	10.6	2.7
		27.1	3.65	1.13		27.9	30.5	24.5	13.3	3.9
		7.6	3.43	1.25		24.6	26.2	24.6	16.9	7.7
		10.7	3.52	1.11		20.7	34.8	25.0	15.2	4.3
	16.4	3.79	1.03	27.7	36.9	24.8	7.8	2.8		

* p<0.05

(3) 통일방식에 대한 인식

고등학생들이 통일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 아니면, 차라리 분단되어 있는 편이 낫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 2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73.5%)이 부정적 반응(13.2%)보다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4>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성별($p < 0.001$)과 보호자의 직업별($P < 0.05$)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68.4%)보다 여학생(78.5%)이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호자의 직업별로는 회사원(86.1%), 상업 및 서비스업(78.9%), 농수산업(70.8%), 공무원(70.6%)의 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로는 1학년(77.0%), 2학년(72.2%), 3학년(69.8%)의 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낮게 보이고 있으며, 가정의 생활정도별로는 상(81.8%), 중(73.5%), 하(69.0%)의 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전체로는 저학년일수록, 또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반응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4> 통일방식에 대한 인식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60	4.06	1.21	52.0	21.5	13.3	7.4	5.8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잠 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9.8	3.90	1.33	1.57	48.1	20.3	14.5	7.7	9.3	***
		50.2	4.22	1.06		55.8	22.7	12.0	7.2	2.3	
학년별	1학년	38.8	4.18	1.13	2.91	55.7	21.3	12.6	6.3	4.2	
		38.8	4.03	1.22		50.0	22.2	15.0	6.3	6.6	
		22.3	3.93	1.31		49.0	20.8	11.5	11.5	7.3	
학교별	인상	66.6	4.05	1.21	1.01	51.3	21.6	13.6	7.9	5.6	
		33.4	4.09	1.22		53.3	21.3	12.5	6.6	6.3	
가정생활정도	상중하	3.8	4.30	0.98	1.60	57.6	24.2	9.1	9.1	0	
		89.4	4.07	1.21		52.4	21.1	13.3	7.7	5.6	
		6.7	3.84	1.35		43.1	25.9	15.5	3.4	12.1	
과학적관념	국중고대기	14.3	3.95	1.22	0.58	45.5	23.6	17.9	6.5	6.5	
		70.3	4.08	1.21		52.1	23.1	11.7	7.1	6.0	
		13.8	4.06	1.24		56.3	12.6	16.0	10.9	4.2	
		1.5	4.31	1.25		69.2	7.7	15.4	0	7.7	
보훈자의 직업	농수산업회사공기	38.3	3.98	1.26	4.00	48.9	21.9	13.7	8.8	6.7	*
		27.1	4.23	1.12		57.9	21.0	11.2	5.6	4.3	
		7.6	4.45	0.81		61.5	24.6	10.8	3.1	0	
		10.7	3.91	1.36		48.9	21.7	10.9	8.7	9.8	
		16.4	3.92	1.25		46.8	19.9	18.4	8.5	6.4	

* p<0.05 *** p<0.001

2) 안보차원

안보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3개 문항이 설정되었다. 이들 문항을 성향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의식내용을 제시하면, 인지수준에서는 평화유지와 핵무기 보유, 정의수준에서는 안보태세에 대한 인식, 의지수준에서는 국토방위의 의지 등이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는 위에서 제시된 순서에 따라 분석하기로 한다.

(1) 평화유지와 핵무기 보유

고등학생들이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의 침략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 2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39.8%)보다 부정적 반응(41.4%)이 비교적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5> 평화유지와 핵무기 보유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60	3.02	1.52	27.0	12.8	18.8	18.4	23.0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9.8	3.12	1.59	1.20	32.2	12.1	14.5	17.5	23.6
	여	50.2	2.93	1.45		21.8	13.4	23.1	19.2	22.5
학년별	1학년	38.8	2.91	1.59	3.71	27.5	9.9	17.7	15.6	29.3
	2학년	38.8	2.99	1.44		23.4	13.8	21.3	22.2	19.5
	3학년	22.3	3.28	1.51		32.3	16.1	16.7	16.7	18.2
학교별	인문고	66.6	3.07	1.50	1.11	27.2	13.3	19.5	19.5	20.4
	상업고	33.4	2.92	1.57		26.5	11.8	17.4	16.0	28.2
가정의생활 정도	상	3.8	3.30	1.55	0.93	30.3	21.2	21.2	3.0	24.2
	중	89.4	3.00	1.52		26.7	12.4	18.5	19.4	23.1
	하	6.7	3.17	1.51		29.3	13.8	22.4	13.8	20.7
가장력	국·중·고대기	14.3	3.09	1.47	1.62	26.8	12.2	22.8	19.5	18.7
	고졸	70.3	2.98	1.51		25.5	13.1	18.8	18.8	23.8
	졸출	13.8	3.25	1.59		35.3	13.4	13.4	16.8	21.0
	타	1.5	2.54	1.66		23.1	0	30.8	0	46.2
보호자의 직업	농수산업	38.3	3.05	1.50	2.02	26.1	14.3	20.1	17.3	22.2
	상업서비스업	27.1	2.82	1.47		20.6	14.2	16.7	23.6	24.9
	회사원	7.6	3.35	1.51		35.4	13.8	18.5	15.4	16.9
	사무원	10.7	3.05	1.61		32.6	8.7	15.2	18.5	25.0
	기타	16.4	3.13	1.56		31.9	9.2	22.0	13.5	23.4

* p<0.05

<표 25>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학년별 (p<0.05)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으며, 1학년(44.9%), 2학년(41.7%), 3학년(34.9%)의 순으로 부정적 반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41.1%), 여학생(41.7%)이 비슷하게 부정적 반응을 보이

고 있으며, 가정의 생활정도별로는 상(51.5%), 하(43.1%), 중(38.3%)의 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의 학력별로는 큰 차이는 없고 대졸(48.7%)이 긍정적 반응경향이 높으며, 보호자의 직업별로는 상업 및 서비스업(48.5%)이 높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2) 안보태세에 대한 인식

우리의 안보태세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북괴의 도발에 대비한 우리의 안보태세는 불안하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배경변인별 각 집단의 반응경향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반응결과만 <표 26>에 제시하기로 한다.

<표 26> 안보태세에 대한 인식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계
860	3.47	1.12	20.3	31.2	28.4	15.2	4.9	100

<표 26>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51.5%)이 부정적 반응(20.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고등학생들이 우리 안보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해석이 된다.

(3) 국토방위의 의지

고등학생들이 국토방위의 의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6.25와 같은 전쟁이 재발한다면 기꺼이 국토방위에 참여하겠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 28>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51.6%)이 부정적 반응(14.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7>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성별($p < 0.001$)과 학교별($p < 0.05$)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

생(68.5%)이 여학생(34.7%)보다 긍정적 반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별로는 인문고(53.1%)가 상업고(48.4%)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로는 3학년(56.3%), 2학년(52.4%), 1학년(47.9%)의 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 학년이 높을수록 국토방위의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27> 국토방위의 의지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크롭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60	3.64	1.22	34.0	17.6	34.2	6.6	7.6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크롭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여	49.8 50.2	4.00 3.28	1.17 1.17	1.00	46.5 21.5	22.0 13.2	23.6 44.9	0.9 12.3	7.0 8.1	***
학년별	1학년 2학년 3학년	38.8 38.8 22.3	3.57 3.66 3.70	1.26 1.20 1.20	0.78	33.8 34.1 33.9	14.1 18.3 22.4	36.5 33.8 31.3	6.9 7.2 5.2	8.7 6.6 7.3	
학교별	인문고 상업고	66.6 33.4	3.67 3.57	1.18 1.30	1.22	33.2 35.5	19.9 12.9	33.7 35.5	7.2 5.6	6.1 10.5	*
가정소득 의별	상 중 하	3.8 89.4 6.7	3.61 3.64 3.60	1.39 1.20 1.44	0.04	36.4 33.4 39.7	21.2 17.6 15.5	21.2 35.5 25.9	9.1 6.8 3.4	12.1 6.8 15.5	
가족 소득의 별	국립 고등학교 출 출 출 출 출	14.3 70.3 13.8 1.5	3.72 3.64 3.52 3.77	1.17 1.21 1.31 1.36	0.58	35.8 33.6 32.8 46.2	16.3 18.2 16.8 7.7	37.4 34.5 30.3 30.8	4.9 6.3 10.1 7.7	5.7 7.4 10.1 7.7	
보호자의 직업	농수산업 상업 서비스 사회공 기	38.3 27.1 7.6 10.7 16.4	3.75 3.59 3.49 3.65 3.50	1.21 1.23 1.30 1.24 1.20	1.50	37.1 33.0 30.8 37.0 27.7	20.4 15.0 18.5 12.0 18.4	30.7 37.3 29.2 37.0 38.3	4.6 6.9 12.3 7.6 7.8	7.3 7.7 9.2 6.5 7.8	

* p<0.05

*** p<0.001

V. 要約 및 結論

本 研究의 目的은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政治意識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치의식을 “政治對象에 대해서 고등학생들의 갖는 인지적·정의적·행동적인 반응성향”이라고 정의하고, 국내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하여진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한 후에 정치의식의 개념모형을 構案하여 제시하였다.

구안된 ‘개념모형’에는 정치적 대상의 영역을 민족·국가영역, 정치·사회영역, 통일·안보의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내용들은 태도구성이론을 토대로 인지·정의·의지 등 세 수준의 심리적 성향차원으로 분류하였다.

표집방법은 制限標本抽出(Restricted Sampling)에 의한 群集標集方法(Cluster Sampling Technique)을 援用하여 질문지를 실시하였는데, 제주시 지역 4개교, 서귀포시 지역 2개교, 북제주군 지역 2개교, 남제주군 지역 2개교 등 총 10개 고등학교 학생 920명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표집된 인원은 894명이었으나, 성의가 없는 응답지를 제외하고 실제로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된 표집수는 860명이었다.

조사도구는 정치의식의 개념모형에 맞추어서, 민족·국가영역 6개 문항, 정치·사회 영역에 12개 문항, 통일·안보 영역에 6개 문항 등 총 24개의 문항을 만들었다.

이들 문항의 측정은 Likert식을 사용하였으며, F검증에 의하여 6개의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차에 대한 有義性을 비교하였다.

각 영역별에 따른 차원별 반응결과는 편의상 영역별로 전체반응분석비율을 제시한 다음, 이를 차원별로 분류해서 분석 및 해석을 하였으며, 그리고 배경변인별로 두드러진 특징적 성향만을 요약·제시하였다.

< 民族·國家領域 >

민족·국가영역에서 긍정적인 반응경향을 높게 보인 정치의식의 구성내용

은 충효사상에 대한 태도(89.9%), 국가 동일시(74.5%) 등이고, 비교적 긍정도가 높은 정치의식은 애국심(61.7%), 민족적 자부심(57.9%), 국민적 자부심(66.0%) 등이며, 비교적 낮은 긍정적 반응 내지 부정적 반응경향을 보인 구성내용은 조국애(49.9%)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여 주고 있는 민족·국가영역에 대한 전체반응결과를 다시 민족과 국가 차원별로 요약해 보면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民族次元에서 나타난 특징적 성향을 보면,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애국심(61.7%)은 비교적 높은 편이며, 민족적 자부심(57.9%)도 가지고 있다.

특히 전통사상인 충효사상에 대한 태도(89.9%)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충효사상은 계속하여 교육되고 지켜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國家次元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망하면 결국 나도 망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학생들이 전체응답자의 74.5%나 되고 있어 국가와의 공동체의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전체응답자의 66%나 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국민적 자부심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조국애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이 49.9%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제화 시대에 즈음하여 조국애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잘 모르겠다 : 26.9%, 아닌 것 같다 : 13.6%) 있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政治·社會領域 >

정치·사회 영역에서 긍정적 반응경향을 높게 보인 정치의식의 구성내용은 빈부의 심화정도(71.3%)이며, 비교적 긍정도가 높은 정치의식은 제충의식(68.4%), 우리 사회의 배금사상(61.1%), 정치능력감(52.9%) 등이며, 비교적 낮은 긍정적 반응 내지 부정적 반응경향을 보인 구성내용은 정치적 관심도(47.4%), 정부시책에 대한 지지도(48.9%), 투표에 대한 인식(44.9%), 사회적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44.1%), 국회권한 강화여부(38.1%), 지도자의 국민요구 충족도(22.0%), 정당의 국민의사 반영도(12.0%),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11.4%) 등이다.

이상에서 보여 주고 있는 정치·사회영역에 대한 전체반응결과를 다시 정치와 사회차원별로 요약해 보면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政治次元에서 나타난 특징적 성향을 보면, 투표에 대한 인식, 국회권한 강화여부, 정당의 국민 의사 반영도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낮은 이유는 국회의원을 애써 선출해 보아도 당리당략 등으로 지역주민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듯하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관심, 지도자의 국민요구 충족도,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 정부시책에 대한 지지도의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지도자의 국민요구 충족도(55.1%) 및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45.2%), 정당의 국민 의사 반영도(59.3%)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여 있는 듯하여 주목된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를 키워갈 자신과 능력감에 대한 인식성향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다행이라 하겠다.

社會次元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는 빈부의 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부지런히 일해도 잘 살 수 없다는 부정적 인식 성향이 55.8%나 되고 있다. 또한 돈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배금사상도 61.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걱정된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생활 정도에 따라 계층이 형성되어 있다(68.4%)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 統一·安保領域 >

통일·안보 영역에서 긍정적 반응경향을 비교적 높게 보인 정치의식의 구성내용은 통일방식에 대한 인식(73.5%)이며, 비교적 긍정도가 높은 정치의식은 북한동포에 대한 감정(59.1%), 안보태세에 대한 인식(51.5%), 국토방위의 의지(51.6%) 등이며, 부정적 반응경향을 보인 구성내용은 평화통일에 대한 정책의 숙지도(34.4%), 평화유지와 핵무기 보유(41.4%) 등이다.

이상에서 보여 주고 있는 통일·안보영역에 대한 전체반응결과를 다시 통일과 안보차원별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統一次元에서 나타난 특징적 성향을 보면, 우리의 주장에 의한 통일방식을 지지하는 반응(73.5%)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숙지도(18.8%)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동포에 대한 동포애(59.0%)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이 엿보이고 있다 하겠다.

安保次元에서 나타난 특징적 성향을 보면, 고등학생들이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전쟁재발시 국토방위에 기꺼이 참여 하겠다는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평화유지를 위한 핵무기 보유(39.8%)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이 낮아 핵무기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상 요약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때, 제주도 고등학생들이 政治意識은 다음과 같다.

民族次元에서는 민족의 핵심인 民族意識에서 비교적 긍정적 반응경향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다른 나라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우리 민족의 특수성으로서 혈연적, 문화적 공동체의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共屬的 感情내지 연대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國家次元에서는 국가와의 공동체의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국민적 자부심도 있으나, 祖國愛의 약화현상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조국에 대한 애국심의 약화라고 보기보다는 국제화 시대에 즈음하여 세계 어디를 가서 생활하든지간에 보다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여 보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政治次元에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 인식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정치의 여러가지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행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누적되어 있어서 정부와 국민 모두가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政治能力感이 높게 나타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社會次元에서는 빈부의 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자기보다 상류계층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성향을 보이고 있고, 황금만능사상을 높이 신뢰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사회의 기회적 균등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성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統一次元에서는 북한동포에 대한 동포애가 매우 높고, 자유민주적인 평화

통일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의 통일정책의 잦은 변화로 어떻게 통일을 이룩할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安保次元에서는 국토방위의 의지가 높으며, 우리의 안보태세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하고 있으면서도 핵무기 보유를 통한 안보나 평화유지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핵의 인류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듯하다.



參 考 文 獻

1. 韓國文獻

< 單行本 >

- 金榮國, 金雲泰, 崔鍾起(1981), 「政治學概論」, 서울대학교출판부.
金字泰(1987), 「政治學」, 蜃雪出版社.
김태창(1986), 「현대정치학 입문」, 蜃雪出版社.
박동서, 김광웅(1987), 「韓國人の 民主政治意識」, 서울대학교출판부.
朴容憲(1976), 「社會的 行動과 學習」, 教育出版社.
백상건(1983), 「政治學講義」, 博英社.
李克燦(1987), 「政治學」, 法文社.
이동희(1981), 「政治學原論」, 日新社.
李相九(1981), 「現代政治學」, 大旺社.
丁得圭(1975), 「政治意識과 投票行態」, 博英社.
정운무(1982), 「現代政治心理論」, 博英社.
최창규(1971), 「韓國人の 政治意識」, 한국문화연구소.
韓培浩, 魚秀永(1987), 「韓國政治文化」, 法文社.

< 論 文 >

- 강병준(1990), “國民倫理教師의 政治意識에 관한 考察,” 碩士學位論文,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高永復(1982), “韓國大學生の 意識과 思想,” 「現代社會」, 범호, 現代社會研究所.
金恒元, 高性俊, 金泰保(1986), “濟州道 大學生の 政治意識에 관한 調查研究,” 「제주

- 대학교 논문집」, 제24집(사회편), 제주대학교.
- 朴容憲(1980), “現代 韓國人の 政治意識에 관한 調査研究,” 「韓國思想과 倫理」,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朴準用(1975), “南北對話가 南北統一에 미칠 影響과 國民의 反應研究,” 釜山大學校 法政大學, 「法學研究」, 第17卷, 釜山大學校.
- 安秉珉(1982), “韓國 高等學生들의 政治意識에 관한 小考,” 「부산대학교 사회과학 논총」, 제1권 2호, 부산대학교.
- 劉鍾海(1973), “韓國 中高等學校 學生들의 社會化過程에 관한 研究,” 「省谷論叢」, 第四輯, 省谷學術文化財團.
- 尹龍熙, 成章煥(1982), “政治社會화와 環境,” 「東洋文化研究」, 第九輯, 경북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 李京求(1968), “都市民의 政治意識,” 「성대논문집」, 제13집, 성균관대학교.
- 李命吉(1972), “地方 大學生의 勝共生活 態도의 分析,” 「문교부연구보고서」, 사회과학계 제2집, 경상대학교.
- 田裕新(1969), “韓國大學生의 政治的 態度,” 「고려대학교 논문집」, 인문·사회과학 편 제15집, 고려대학교.
- 丁得圭(1971), “韓國人の 政治意識의 構造的 分析,” 「全南大學校 論文集」, 第17卷, 전남대학교.
- 威義英(1972), “政治意識의 民主化,” 「사회과학 논문집」, 제5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黃明姬(1989), “韓國大學生의 政治意識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 西洋文獻

- Almond, Gabriel A. and Bingham Powell, G. (1966), *Comparative politics : A Development Approach*. Boston: little, Brown and Co.

- Almond, Gabriel A. and Verba, S.(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Political Development*.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er, Samuel H.(1958), "The Analysis of Political System," in *Patterns of Government*, ed., by Beer, Samuel H. and Ulam, Adam B. New York: Random.
- Campbell, D. T.(1950), "The Indirect Assessment of Social Attitude," *Psychological Bulletin*, No.47.
- Dahl, R.(1966), *Political opposition in Western Democracies*. New Haven, Conn. : Yale University Press.
- Massialas, Byron G.(1969), "Citizenship and Political Socialiation,"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 Paige, Jeffery M.(1971), "Political Orientation and Rio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36. Oct.
- Pye, Lucian W.(1974), "Political Culture," David L. Sills ed., *Into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Vol.12, New York: Macmillan and the Free Press.

<Summary>

A Study on Political Consciousness of High-school Students in Cheju-do

Her Kun-Jin

Social Studie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ang-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s data for improvement of the contents and the way of the political education in high schools which contributes to settling of democratic political culture and to development of democratic politics, through analyzing political consciousness of the students in Chejudo synthetically and systematically.

The study by literature and the paper of questionnaire is used as the method of this study, and 860 students in high school in Chejudo are chosen as the subject of this study. Questionnaire is composed of 24 items for answer, including 6 items in the domain of race and nation, 12 items in the domain of politics and society, and 6 items in the domain of unification and security. The data collected are used to indicate the total percentage of reaction by the domain and then to analyze and interpret it by the level.

The result of data analysis, political consciousness of high-school students in Chejudo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4.

1. In the level of race, the data shows the high positive tendency of reaction in racial consciousness, the kernel of race, accordingly it is thought that students have high joint consciousness and the emotion of belonging to the same position.
2. In the level of nation, they form a firm spirit cooperation with the nation and have the national conceit, but the data shows a phenomenon of gradually weakening patriotism.
3. In the level of politics, judging from the high negative cognitive propensity,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is being reduced.
4. In the level of society, the data shows that there is a noticeable distinction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so it is thought that they trust mammonism highly, having a negative cognitive propensity for the superior.
5. In the level of unification, they have strongly brotherly love for the North Korean and want a democratic peace-unification, but they don't know the way of unification.
6. In the level of security, they have a strong will to the defence of the country, and they are concerned about our security attitude, but they don't want to maintain the security and peace by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질 문 지

안녕하십니까 ?

이 질문지는 학생들의 정치의식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맞거나 틀린 답은 없으므로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답하여 주십시오.

따라서 여러분의 응답결과는 비밀이 절대 보장될 것이며 성적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집단단위로만 분석될 결과는 오직 학문 연구에만 사용될 것이므로 설문 내용을 잘 읽고 학생의 생각을 솔직하고 성의있게 답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1993. 11.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허 군 진

☛ 다음 문항을 읽고 5개의 보기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에 V표를 해 주십시오.

확실히 그렇것 잘모르 아닌것 확실히
그렇다 같 다 겠 다 같 다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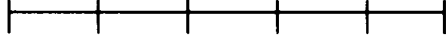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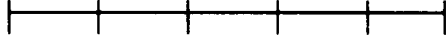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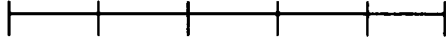
- 1.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애국심이 강하다. |_|_|_|_|
- 2.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 중의 하나다. |_|_|_|_|
- 3. 옛부터 내려온 충효사상은 계속 지켜져야 다. |_|_|_|_|
- 4. 국가가 망하면 결국 나도 망한다. |_|_|_|_|
- 5. 나는 한국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_|_|_|_|
- 6. 나는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조국에서 살겠다. |_|_|_|_|

확실히 그런것 잘못 아닌것 확실히
 그렇다 같 다 겠 다 같 다 아니다

- 7. 정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
- 8. 우리 나라의 지도자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잘 실현시켜 주고 있다. |-----|
- 9. 적당한 후보가 없으면 투표를 기권하는 것이 정당하다. |-----|
- 10. 나는 정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
- 11. 우리 나라의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있다. |-----|
- 12. 행정부의 하는 일은 믿음만 하다. |-----|
- 13. 우리 국민은 훌륭하게 민주주의를 키워 갈 자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
- 14.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정부의 시책에는 반드시 따르지 않겠다. |-----|
- 15. 우리 사회에서는 빈부의 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 |-----|
- 16. 나와 생활정도가 같은 사람들과는 더욱 친근감이 든다. |-----|
- 17. 우리 사회는 돈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된다. |-----|
- 18. 우리 사회는 누구나 부지런히 노력하면 다 잘 살수 있다. |-----|
- 19.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평화통일정책을 나는 잘 알고 있다. |-----|
- 20. 북한체제 아래서 고생하는 동포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



확실히 그런것 잘모르 아닌것 확실히
 그렇다 같 다 겠 다 같 다 아니다

21. 우리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 아니면, 차라리 분단되어 있는 편이 낫다. 
22. 북한의 침략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23.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우리의 안보태세는 불안하다. 
24. 6.25같은 전쟁이 재발한다면 나는 기꺼이 국토방위에 참여하겠다. 

☞ 다음 물음에 알맞는 것의 번호에 ○표를 하십시오.

25. 귀하의 성별은 ? 1)남자 2) 여자
26. 귀하의 학년은 ? 1)1학년 2)2학년 3)3학년
27. 귀하의 학교는 ? 1)인문고 2)상업고
28. 가정의 생활정도는 ? 1)상 2)중 3)하
29. 가장의 학력은 ? 1)국졸 2)중·고졸 3)대졸 4)기타
30. 보호자의 직업은 ?
- 1)농수산업
 - 2)상업 및 서비스업
 - 3)회사원
 - 4)공무원(교육공무원)
 - 5)기 타